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세계병자의 날



2월 10일 세계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원

장님은 병동에 계시는 환자 및 보호자 한분 한분 찾아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선물 및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 ▶ 호스피스 봉사동아리 Going Together



4월 14일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위

로와 희망의 메시지 카드를 제작하여 부활절 선물과 함께 마음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우나 메시지 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 ▶ 통증 캠페인



5월 24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증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암성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지도 향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소개와 홍보활동을 하였다.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 부활 대축일



4월 13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작두콩을 계란 화분에 심는 활동을 했다. 직접 흙을 만지고

콩을 심고 물을 주는 활동으로 생동감을 부여했고, 계란 화분을 꾸미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 ▶ 가정형 호스피스 - 팝아트



5월 4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정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의 사진을 찍어 팝아트 그림으로 그려 선물했다. 그림으로 그려진 색다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었다.

### ▶ 어버이날



5월 6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과 떡을 선물했다.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함을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 통증 캠페인



5월 20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했

다.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O, X 퀴즈를 풀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활동을 하고 안내 자료와 홍보물품을 나눴다.

## 부산성모병원

### ▶ 부활 축하 특식 제공



4월 21일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마련한 자리,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부활절을 축하하며 환자와 가족, 팀원

들 모두 함께하는 사랑의 식사 시간을 마련하였다. 펼쳐 놓고 식사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올해도 개인도 시락으로 제공되었으며, 환자와 가족,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지만,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가 된 자리였다. 식사 외 별도의 쿠키 선물을 원목 사계에서 나누기도 하여 부활 팔부 축일을 지내는 평화의 시간이었다.

### ▶ 호스피스 병동 미사



5월 12일, 6월 9일 코로나로 어떤 모임도 쉽지 않은 시절, 호스피스 병동의 미사가 재개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병동의 천주교 신자 및 가족들과 팀원들이 함께 하게 된 이 시간, 박재범 원목실장 신부님의 집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이 이 미사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지향하는 시간이었다.

### ▶ 호스피스 캠페인

5월 30일 “암성 통증 조절될 수 있다.”, “호스피스 제대



로 알기” 대다수의 많은 말기 암환자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과 오히려 겪는 고통의 시간을 경감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호스피스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캠페인 장소를 원내로 한정하여 내원객들 및 원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호스피스 안내장과 홍보 물품을 제공하며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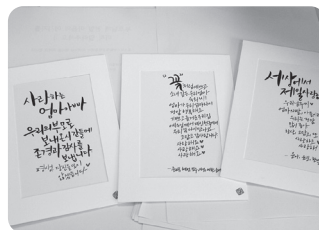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주님 부활 대축일 기념 부활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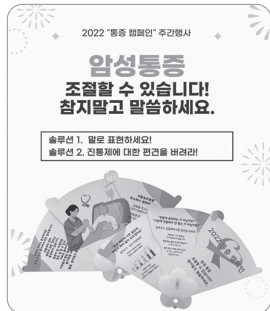
4월 17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부활절 주간에 이용하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 호스피스 직원과 유관부서에 부활 바구니와 마스크를 선물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다.

### ▶ 어버이날 행사



5월 6일 어버이날(5월 8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마음의 메시지를 캘리그래피로 제작하여 카네이션과 함께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면회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환자와 함께 읽고 나누면서 그간에 환자가 가족 안에서 살아온 삶과 가족의 사랑,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 통증 캠페인 주간 행사



5월 16일~19일 통증 캠페인 주간 행사로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 슬로건 아래 4일간 원내 환자와 가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통증 조절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채를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암 병동 환자들에게 배부하고, 교직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증 조절 경험 등을 댓글로 받아 참여자와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행사 선물을 전했다.

성가를로병원

▶ 사별가족 아유회



5월 31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나눔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사별 후 웃지 못하고 꼭꼭 눌렀던 폭소를 터트리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

▶ 통증 캠페인



6월 13일 본원 로비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암성 통증에 대한 O, X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암성 통증에 대한 편견과 진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기념품까지 받게 되니 일석이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도서 대여 서비스



2022년 4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가족실에 '이달의 신간 도서' 코너를 만들어 매 달 신간 도서 5권씩 비치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병실 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간병으로 인한 심신 소진감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뽑기 이벤트



4월 12일 벚꽃이 만발하는 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환자와 보호자는 뽑기 패넬에 부착된 벚꽃 용지들과 어떤 선물이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하고, 같은 병실 내 환자 및 보호자들이 서로가 뽑은 선물을 보며, 웃고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 보조 활동 인력 소진관리



5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호스피스전문 보조 활동 인력 17명의 소진관리를 위해 원데이 클래스 '가족 지갑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총 3회차로 17명의 호스피스전문 보조 활동 인력들이 나눠서 참여하였으며, 원하는 색깔과 종류로 카드지갑을 만들었다.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



에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고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 사별 가족 1:1 만남



4월 14일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신 어머니는 사별 가족 만남 연락을 받으시고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것처럼 설레었다고 고백하셨다.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간호사들 및 호스피스병동 식구들, 원목 수녀님들을 만나 딸과의 추억을 나누었고, '아름다운 이별의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라는 영상을 시청하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다.

#### ▶ 부활 행사



4월 17일 알렐루야 ♪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환자 및 가족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축축한 피부를 위한 로션 선물을 나누었다. 통증과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돌봄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

#### ▶ 어버이날 행사



5월 6일 올해 맞이하는 어버이날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 날짜 가는 줄도 몰랐다는 자녀들과 다학제 팀원들이 함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아름다운 카네이션에 담아 나누어 드렸다.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 통증 캠페인



본원에서 내원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리플릿 및 홍보물(볼펜, 부채, 장바구니 등) 배포, 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 ▶ 어버이날 이벤트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담아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방문하지 못한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편지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옥상정원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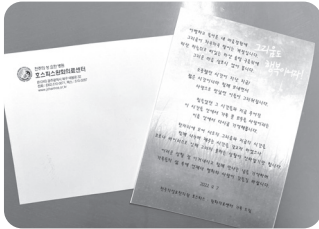


따뜻해진 봄날, 꽃구경을 위해 환자 및 가족분들이 옥상정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실습생분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천주의 성모한의원

#### ▶ 사별가족 우편 발송

4월 8일 사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모임을 대신하여 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부활절 행사



4월 16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부활절 다과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생일 잔치



생신을 맞은 입원 환자에게 생일 축하와 선물을 전하고 사진 촬영을 해드리며 환자와 가족 간에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7일 어버이날 맞아 생화 카네이션과 다과를 전달하고 어버이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과 소중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일반의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암성통증에 대한 관심 유발과 올바른 지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1회, 2회 이사회

2월 11일, 5월 3일 Zoom 회의로 진행하였다. 제1회 이사회에서는 라정란 부회장이 2021년 결산과 사업 보고 및 2022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고 감사 연임과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제2회 이사회에서는 74호 협회지 발간과 제22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피정에 대해 토의를 하였으며 상세한 프로그램은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제15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022년 기관대표자회의

3월 23일 Zoom 회의로 진행하였다. 2021년 사업 보고와 회계 보고, 2022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보고하고 4월 20일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현 유양숙, 유영순 감사 연임을 의결하여 대전시청에 보고하였다.

기관대표자회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염혜아 교수(협회 부회장)의 노인 사별에 대한 특강과 2021년 코로나 시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